

<2017년 8월 23일 수요말씀>

생각이 주인이다. 검토자다 지금은 감정의 시대다

본 문 마태복음 11장 29-3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<생각>과 <감정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◎ 먼저 <생각에 대한 말씀>을 해 주겠습니다.

그동안 설교와 잠언으로 <생각>에 대해 정말 많이 말씀했는데,
오늘 또 해 주겠습니다.

사람은 <움직이는 몸>을 가지고
<마음과 생각>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니,
<마음과 생각>이 그만큼 귀하고 중합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<선>으로 ‘악’을 이기는데, (무엇으로 이기느냐..) <생각>으로 이깁니다.

- ◆ <선한 생각>으로 ‘악’ 과 겨루고 싸워 이기면, <육>도 이깁니다.
- ◆ <생각>에서 이겨야, <몸>도 이깁니다.
- ◆ 항상 어떤 일을 놓고 ‘할까, 말까’ 싸우는데요,
역시 <생각>으로 싸웁니다.
- ◆ 그러나 <그냥 생각>으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.
배워서 지식이 있고 알아야 <그 생각>으로 판단하고 싸워 이깁니다.
- ◆ <생각>이 절대자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돼야
<그 생각>으로 ‘불의’ 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.
- ◆ 항상 <선>과 <악>,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옵니다.
<선>은 행하고, <악>은 행하지 않기입니다.
<선>은 절대 하기, <악>은 절대 안 하기.
→ 이것은 ‘생각’ 으로 판단합니다.

그냥 생각으로는 판단력이 약하여
<선>은 절대 하고 <악>은 절대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

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많이 배우고 알아야
<그 생각>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.

- ◆ 어떤 것은 <몸의 신경, 느낌, 자극>에 따라서
<생각>이 따라가기도 합니다.

추우면 몸이 추위에 자극받고 <생각>이 따뜻한 곳으로 가고,
더우면 몸이 더위에 자극받고 <생각>이 시원한 곳으로 가집니다.

이와 같이

눈으로 보면 - 보이는 대로 <생각>이 그쪽 편에 서고,

귀로 들으면 - 들리는 대로 <생각>이 그쪽 편에 서고,

먹으면 - 먹는 대로 <생각>이 그쪽 편에 서고,

몸으로 느끼면 - 느끼는 대로 <생각>이 그쪽 편에 서게 됩니다.

◆ 이와 같이 <생각>은

눈으로 보고, 귀로 듣고, 몸이 자극을 받는 대로 가게 됩니다.

고로 자꾸 <선>을 말해 주고 보여 줘야 됩니다.

그러면 <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>이 좋아하며 따라옵니다.

◆ 또한 <생각>은 ‘더 좋은 쪽’ 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

고로 <좋은 것>을 자꾸 보여 주고 들려주면서,

<생각>이 참고하게 해 줘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첫째, 사람은 ‘생각 덩어리, 느낌 덩어리’ 입니다.

<뇌>에 신경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.

고로 ‘생각하고 느끼는 쪽’ 으로 생각도 몸도 따라갑니다.

기도하며 <하나님>을 느끼거나

은혜를 받고 <하나님>을 느끼면 생각도 몸도 그쪽으로 갑니다.

말씀을 보며 <주>를 생각하면, 생각도 몸도 그쪽으로 갑니다.

<이성>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면, 생각도 몸도 그쪽으로 갑니다.

- ◆ 둘째, 사람은 ‘보는 덩어리’ 입니다.

고로 ‘보고 좋은 쪽’ 으로 자꾸 생각도 몸도 따라갑니다.

시장이나 거리에 나가면 ‘눈으로 보고 좋은 쪽’ 으로
느낌도 생각도 몸도 좋아하며 따라갑니다.

- ◆ 셋째, 사람은 ‘먹는 덩어리’ 입니다.

고로 <먹을 때>가 되면 ‘먹을 것이 있는 곳’ 으로
생각도 몸도 따라갑니다.

- ◆ 그렇다고 무작정

느끼는 쪽으로, 보는 쪽으로, 먹는 쪽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?

- ◆ <생각>이 ‘주인’ 이고 ‘생명의 근원’ 입니다!

눈으로 보고, 귀로 듣고, 몸이 자극을 받아도
그쪽으로 가느냐, 안 가느냐에 대한 판단은 <생각>이 합니다!

- ◆ <생각>이 어리고 약하면

- <보는 눈, 듣는 귀, 먹는 입>이 ‘중심’ 이 되어 행하고,
- <자극에 약한 몸>이 ‘중심’ 이 되어 행합니다.

- ◆ <생각>이 어리고 약하면

<하(下)차원의 것>을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,
이것을 중심으로 행하게 됩니다.

<생각>이 차원 높은 ‘몸의 주인’ 이 되면,
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몸에 자극을 받아도
<생각>이 옳게 판단하여 ‘자기 몸’ 을 다스립니다.

- ◆ <생각>이 차원 높고 지혜로워서 <지혜의 판단>이 확실해야 됩니다.
- ◆ <생각이 높은 자>는
<얻는 것>도 ‘최고로 좋고 차원 높은 것’ 을 얻습니다.
- ◆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‘하나님의 생각과 일체’ 되면,
눈으로 보는 것, 귀로 듣는 것,
몸으로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

◎ 중요한 말씀을 할 테니, 잘 들어요.

- ◆ <생각>을 ‘하나의 주인’ 이라고 생각하고,
<눈>과 <귀>와 <몸>은 ‘말의 보고하는 자’ 라고 생각해요.
그리고 <눈으로 본 것, 귀로 들은 것, 몸으로 느낀 것>을
<생각>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해요.
이것을 <생각>에게 보고하면,
<생각>이 재 보고 달아 보고 쫓게 보고 정밀히 확인하기입니다.
- ◆ 이렇게 <생각>이 ‘주인’ 이 되고 ‘신’ 이 되어 온전히 알고,
<자기 지체>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행하게 해야 됩니다.
- ◆ <생각>이 ‘검토자’ 입니다.
<하나님과 일체 된 생각>을 가지고

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낀 것을 검토하면 ‘답’ 이 옵니다.

<생각>이 옳고 그른 것을 검토한 후에 <몸>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<생각에 대한 잠언>을 몇 개 전해 주겠습니다.

◆ 생각을 집중하고, 생각이 높이 솟으면, 잡생각이 사라진다.

◆ 육이 가만히 있듯이 <생각>이 가만히 있으면, 무(無)다.
고로 ‘되는 것’ 이 없다.

육을 움직이듯이 <생각>을 움직이면, 무엇이든지 생각해서 얻는다.

◆ 사람은 <생각>대로 행한다.
<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행한 것>은 틀리게 된다.

◆ <생각>만 연단하고 <몸>은 연단하지 않으면, <몸>이 못 따라간다.

◆ 암벽 타기도 <생각>만으로는 못 한다.

<몸>도 각종 기술을 익히고, 체질과 체력이 연단되어야
<생각>과 같이 행하여 암벽을 탈 수 있다.

◆ <생각>도 연단, <몸>도 연단이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<생각 연단, 몸 연단>에 대한 말씀이 나온 김에,

새벽 잠언으로 해 줬던 말씀 중에

이에 해당되는 잠언을 한 번 더 전해 주고 지나가겠습니다.

- ◆ 사람이 <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몸>으로는 연약해서
갈대같이 너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,
환경의 영향을 받고 너무도 고통을 받는다.

- ◆ <생각>도 <몸>도 연단하고 단련하여
<체질 변화, 정신 변화>시켜 살아야
추위도 더위도 환경도 잘 견디고, 고생도 안 한다.

- ◆ <마음>도 <생각>도 <몸>도 어린아이같이 약하니, ‘연단’ 이다.

- ◆ <농사지을 때 쓰는 연장>이나 <생활할 때 쓰는 연장>도
처음에 쇳덩이일 때는 약했다.

쓰이는 곳에 따라서 다시 ‘강도 조절’ 을 하여 강하게 만들어야
<연장>으로 쓸 수 있다.

낫, 괭이, 삽, 칼 등 모두 ‘강도 조절’ 을 해서 다시 만들었기에,
그 위치에 쓸 때 견디는 것이다.

- ◆ 사람도 태어난 대로 그냥 쓰면, 약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.

생각과 몸을 연단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으면

추위나 더위에 금방 쓰러지고,

안 좋은 말을 듣고 겪을 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난다.

<연단>이다. ‘도가니에 넣은 금’ 같이 <단련>이다.

- ◆ <몸>도 운동해서 단련하면 10배, 20배 강하게 만든다.
마음도 생각도 몸도 체질도 연단하고 단련하여라.

연단을 안 하면

서운함, 오해, 위축감, 두려움, 공포, 눈치 보기, 우울증이 쉽게 오고,
작은 것에 부딪혀도 타격을 받는다.

그러면 신경이 너무 충격받아서, 제대로 할 일을 못 한다.

- ◆ 생활 속에서 마음과 몸 체질 연단,
기후와 날씨에 따라 잘 견디도록 연단, 마음과 생각의 연단이다.

좁은 데 연단, 넓은 데 연단, 높은 데 연단, 험한 길에 연단이다.

인생길을 가면서도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연단이다.

- ◆ 어느 시대든지 ‘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’ 일수록,
거기에 해당되게 연단하게 하셨다.

- ◆ <연단>은 마치 ‘그 센터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는 것’ 과 같다.

모르면 - 쥐도 못 하듯이,

연단이 안 되면 - 쥐도

마음과 몸의 체질이 감당을 못 해서 주인이 못 된다.

- ◆ <연단되지 않은 자>는 하나님이 쥐도 못 견디고 안 하고 떠난다.

<연단된 자>는 ‘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껍데기’ 가 지나가면
‘알맹이 황금 보석’ 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견디고 이긴다.

- ◆ <땅속의 보화>도 ‘연단되고 단련된 자’가 캐낸다.

<연단된 마음과 단련된 몸>을 가지고
땅을 파 들어가서 보화를 캐낸다.

- ◆ 시대 구원자는 지구력 있게
10~20년 동안 계속 성경을 파고들어서,
결국 <시대 말씀>을 깨달았다.

그 말씀을 전해서 <하나님의 역사>를 이루고 <새 역사>를 지켜 왔다.

- ◆ <연단되고 단련된 자>가 끝까지 뛰고,
끝에 있는 것을 얻고서 쉼어지고 천 리 길을 온다.

- ◎ <마음과 생각과 몸 연단에 대한 말씀>은
다음 주 수요일에도 다른 말씀을 하는 중에 또 나옵니다.

선생이 직접 겪고 느끼면서, 또 깊은 단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
<역사의 기록>을 남기며 <교육할 것들>을 교육하니,
1차로 수련회 이후부터 9월까지
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.

<책으로도 남길 말씀>이고, <설교로도 할 말씀>이고,
<신학생들도 교육할 말씀>입니다.

<전환>

- ◎ 다음은 <감정>에 대해 ‘잠언’으로 말씀하겠습니다.
잘~ 듣기 바랍니다.

(* 이번 잠언은 화면을 보면서 전해 주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같은 사고를 가진 주관권의 사람들>은
내적으로 한 통속이 되어 움직인다.

<그림 설명>

<북한>은 ‘자기 민족과 같은 사고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’를
‘뽕’로 여기고 과시하며 들이받고,
<미국과 일본>은 ‘발’이 되어 차댄다.

<뽕>로 박고 <발>로 차기 싸움이다.

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대하신다. <끝>

- ◆ (하나님) 서로 ‘감정의 싸움’ 이다.
서로 ‘느끼고 대하는 대로 싸움’ 이다.

- ◆ <감정>이 ‘무기’ 다.

- ◆ <감정>에 따라서
 - ‘핵무기’ 도 되고,
 - ‘소총’ 도 되고,
 - ‘사랑’ 도 되고,
 - ‘의롭게 대함’ 도 된다.

- ◆ <감정의 내용>에 따라서
 - ‘악’ 이 되어 ‘인사탄’ 이 되고,
 - ‘선’ 이 되어 ‘인천사’ 가 된다.

◆ 개인도, 민족도, 세계도 <감정>에 따라서 대하고 행하니,
<감정>을 ‘지혜와 화목’ 으로 잘 다뤄라.

◆ 감정이 과열되어 열 받으면 **‘폭탄’** 이 되어,
못 참고 **‘팡!’** 터진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◆ 감정의 열을 받으면, <주의 대형 냉장고>에 빨리 들어와라.
아니면 <자기 냉장고>를 열고 **‘머리’** 만이라도 넣어 주어라. <끝>

◆ <주로 인해 받은 감정의 열>이 있느냐.
<하나님과 성령님의 냉장고>에 넣어라. 그러면 쉽다.

◆ <감정>이란 ‘느낌’ 이다.
고로 **‘정’** 을 주어서 **‘정’** 을 느끼게 해 주어라.

◆ <감정>은 **‘뇌의 생각’** 에서 느끼는데, 제대로 느껴야 된다.
무지로 상극하여 감정을 잘못 느끼고, 상대에게 열을 내면 안 된다.
실상은 **‘자기 자체에서 솟은 감정’** 이다.
이런 감정은 기도하여 식혀야 된다.

◆ <진리와 사랑>으로 **‘공의롭고 좋은 감정’** 을 주어라.

◆ 이 시대는 <감정의 시대>다.

<감정>을 건드리는 대로
‘의’ 로도 뒤집어지고 **‘화’** 로도 뒤집어진다.

- ◆ 귀뚜라미나 여치도 <감정>을 건드리면 물기도 하고,
반항심에 폴짝 뛰기도 한다.
- ◆ <감정>은 거의 ‘**말**’로 반응이 일어난다.
- ◆ <서운한 감정, 나쁜 감정>은 첫째, 잘 대해 주면 없어진다.
둘째, 자기 자체적으로 마음을 갖고 닦으면 없어진다.
- ◆ <상대의 말과 행위>로 ‘감정’이 치솟기도 하지만,
<자기 마음과 행위>로 ‘감정’이 치솟기도 한다.
- ◆ 자기 관리를 못 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, 감정이 치솟는다.
- ◆ 자기가 무지로 행해서, 감정이 치솟기도 한다.
- ◆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행하다가 실수하여, 감정이 튕겨 나온다.
- ◆ 자기가 상대에게 잘못 말하고 대하니,
상대가 그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감정으로 대한다.

그러니 자기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화가 난다.
- ◆ 잘 보기다. 잘 대하기다. 잘 말하기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감정>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라.

- ◆ 이 시대는 <감정의 시대, 느낌의 시대>다.
고로 감정으로 대하면, 상대가 바로 느낌으로 알고 감정이 격해진다.
- ◆ 시대가 ‘감정의 시대’ 이니 <감정>을 전드리지 말고 살아라.
- ◆ <감정>을 못 다스려서 일을 저지르고, 사고를 저지르고,
개인도 민족도 싸우고, 전쟁까지 하여 피바다가 되기도 했다.
- ◆ <감정>이 결국 ‘화, 분노, 혈기, 악심’ 이 되어 불타서 터진다.
- ◆ <격한 감정>을 없애고, 하나님같이 ‘사랑’ 으로 대해 주어라.
- ◆ 해를 주면, 감정이 치솟는다.
- ◆ 모르고 오해하면, 감정이 치솟는다.
- ◆ 화를 못 참고 자꾸 화를 내면,
뇌신경의 감정 판이 깨져서 작은 일만 있어도 감정이 격해진다.
- ◆ 우울증이 있는 자들은 ‘감정 조절’ 이 안 된다.
다 고치면 고쳐진다.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해 보아라.
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대하면, 우울증이 없어진다.
- ◆ <격한 감정>은 하나님께 고해 버리고, 해가 지기 전에 없애라.
- ◆ <휴거된 자들>은
날마다 ‘육신의 감정 없애기’ 에 목적을 두고 살아라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